

영어의 자연 어순*

박 남 식

0. 머리말

영어의 어순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알아 보려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영어의 어순을 결정하는 요인이 여러가지 있겠지만, 이 논문에서는 두가지 요인만 중점적으로 취급한다.

그 하나는 거리(distance)의 변수이고 다른 하나는 무게(weight)의 변수이다. 전자는 Park (1977a, 1977b, 1977c, 1980, 1981b, 1982, 1983a, 1983b, 1984)에서, 그리고 후자는 Park (1980, 1981a, 1983a, 1983b)에서 각각 다룬 바 있다.

이 논문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현의 구성요소가 먼 거리를 뜻할수록, 혹은 의미/형태상으로 무거울수록 뒷자리를 차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자연 어순”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어순이 일정한 원칙에 의하여 논리적으로 결정되는 경향이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입장은 어순이 임의로 결정되는 것이지 논리성이 결여된 것이라는 Chomsky(1965: 6-7)등의 견해와 정반대라는 것도 아울러 강조하여 두고자 한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차례로 전개된다. 1장에서는 거리와 어순의 관계, 2장에서는 무게와 어순의 관계, 그리고 3장에서는 이 논문의 미해결 문제점등을 취급한다.

1. 거리와 어순

어순의 결정 요인으로서의 거리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언어 사용자의 입장을 시발점으로 하는 거리로서 그것을 친숙도(familiarity)로 생각할 수도 있다. 다른 하나는 표현의 구성 요소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근거로한 거리로서 그것을 밀착도(contiguity/proximity)의 입장에서 정의할 수 있다. 1.1.~1.4.에서는 전자에 해당되는 거리를, 1.5.~1.7.에서는 후자에 해당되는 거리를 취급한다.

1.1. 언행 상황과의 거리

언행상황(speech context)은 언행(speech act)이 일어나는 시간과 공간의 환경을 지칭한다. 이러한 언행 상황과 의미상으로 가까운 요소들이 앞에 오고 그렇지 않은 요소들이 뒤에 오는 경향이 영어에 강하게 나타난다. 다음과 같은 보기들이 이러한 경향을 잘 증명해 주고 있다.

1. a. *At home and abroad.*
- b. *Here and there.*
- c. *Hither and thither.*
- d. *What with this and what with that, ...*

* 본 논문은 1984~1985년도 문교부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본 논문의 골간은 Park(1983)에서 소개되었으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Park (in preparation)에 발표될 예정이다.

그런데 *Koreans at home and abroad*라는 말을 *non-Korean*이 한국 밖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그럴 경우라도 한국에 있는 한국인의 입장에 들어 가서 하는 말이므로 이것이 우리의 주장에 어긋나는 예는 못 된다.

1. 1.의 원칙이 적용되는 모든 표현들은 관용어구들이다. 이들 표현이 비관용적으로 쓰일 때는 “시발점과 가까운 뜻의 요소가 앞에 온다”는 1. 3.의 원칙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here and there*가 “여기와 저기”라는 비관용적인 뜻으로 쓰이면 1. 3.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말이다.

또 한가지 지적해 둘 것은 1. 3.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와는 달리, 1. 1.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문제의 표현이 흔히 반복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이다. *Here and there* (=scattered about)라든지 *hither and thither* (=in all directions)가 좋은 보기가 된다 하겠다.

1의 표현들의 어순을 바꿀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비관용적인 뜻으로만 쓰이고, 그 어순은 1. 3.의 원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there and here*나 *thither and hither*는 비관용적인 뜻밖에 없고 그 어순은 1. 3.의 원칙에 의하여 정해진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시간의 표현에도 적용된다.

2. now and then

위의 표현이 *occasionally*라는 관용적 뜻으로 쓰이면 그 어순이 1. 1.의 원칙으로 결정되며 반복적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지금과 그때”라는 비관용적 의미일 때는 반복적인 의미 없고 어순이 1. 3.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다.

1. 2. 인간과의 거리

표현의 구성 요소가 지칭하는 바가 (언어사용자인) 인간과 가까울수록 그것이 그 표현에서 앞자리에 오는 경향이 있다. 다음과 같은 보기들이 이를 증명하여 주고 있다.

3. a. *Ho Chih Minh*(1) *City*(2)
- b. *? *the City*(2) of *Ho Chih Minh*(1)
4. a. *The Nobel*(1) *Prize*(2)
- b. *? *the Prize*(2) of *Nobel*(1)
5. a. *Rockefeller*(1) *University*(2)
- b. *?. *the University*(2) of *Rockefeller*(1)

위에서 모든 표현이 고유명사(구)인 바 그 구성 요소인 *Ho Chih Minh*, *Nobel*, *Rockefeller*는 인명이다. 그런데 여기서 인명이 앞자리를 차지한 경우만 자연스러운 표현이고, 그것이 뒷 자리로 밀려난 표현은 지극히 부자연스러운 표현임을 볼 수 있을 것이다.

Fillmore(1968:33)의 *subject choice hierarchy*도 우리들의 주장을 뒷받침하여 준다. Fillmore에 의하면, 한 문장에 *Agentive*, *Instrumental*, *Objective* 세 격이 있으면 *Agentive*가 주어로 선택되지만, *Instrumental*과 *Objective*만 있으면 *Instrumental*이 주어가 되고, *Objective*만 있으면 그것이 주어가 된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인간적”자질로 볼 때 *Agentive*>*Instrumental*>*Objective*의 상호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만일 이러한 상호 관계가 성립한다면 문제의 세 격 가운데 인간에 가장 가까운 자질을 가진 격이 주어 자리에 온다고 바꾸어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Fillmore

의 subject choice hierarchy도 우리 주장의 타당성을 증명해주는 좋은 보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주장의 타당성은 주어와 (직접)목적어의 상대적 어순과 간접목적어와 직접목적어의 상대적 어순에서도 찾을 수 있다. 주어와 간접목적어는 일반적으로 인간적인 자질이 높은 반면 (직접)목적어는 일반적으로 인간적인 자질이 낮다. 그런데 인간과 가까운 의미를 갖는 주어와 목적어가 그렇지 않은 직접목적어보다 앞에 오는 것이 보통이고, 1.2.의 원칙으로 보면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

간접목적어 자리에 인간적 의미 자질이 아주 없는 명사가 오면 지극히 어색한 문장이 되는 것도 지적할만 한 사실이다. 예를 들어 "I saved *him* a place"는 좋으나 "(?)I saved *it* a place"는 조금 이상하다. 후자가 이상한 것은 인간적 자질이 높은(대)명사가 와야 할 자리에 그렇지 못한 명사가 왔기 때문인 것이다.

두개의 목적어를 가진 문장을 수동으로 전환시킬 때 일반적으로 간접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수동문이 직접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수동문보다 더 흔히 쓰인다는 점도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것 같다. 예를 들어 "They were told *the story*"가 "The *story* was told (to) *them*"보다 흔하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인간적 자질이 높은 요소가 그렇지 않은 요소보다 앞에 오는 표현이 자연스럽다"는 일반적인 원칙에 의하여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Genitive suffix -'s로 끝나는 명사가 일반적으로 인간적 자질이 높은 의미를 갖는 것도 그러한 말이 다른 명사 앞에 놓이는 것이 보통이라는 사실을 감안해 보면 그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s로 끝나는 말이 다른 명사구의 앞에 와야하는데 그 자리에 인간적 자질이 높은 말이 와야만 그 명사구의 구조적 안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이다.

1.3. 시발점으로 부터의 거리

어떤 시발점이 있을 때 그 시발점으로 부터 가까운 것을 지칭하는 요소일수록 앞 자리를 차지하는 경향이 있다. 다음 표현들은 모두 이렇게 어순이 결정된 것들이다.

6. a. *Sooner or later*
- b. *Two, three* (people)
- c. *Pre-and post-natal care*
- d. (From) *London to New York*
- e. *Lost and found*

6. b.에서 처럼 수를 정상적으로 셀 때는 작은 수를 시발점으로 해서 큰 수로 옮겨간다. 그리하여 "They range in age from 9 to 25"는 좋으나 "?They range in age from 25 to 9"은 좋지 않다. 그러나 count down의 상황에서는 큰 수를 기점으로하고 그 보다 작은 수로 옮겨가므로 "Five, four, three, two, one, zero"의 순서가 되는 것이다. 우리의 주장은 물론 이러한 count down의 상황에서도 적용된다.

다음 예문들에서 동사의 의미에 따라서 시발점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을 보라.

7. a. The temperature *plunged* from 25° to 9°.
- b. * The temperature *plunged* from 9° to 25°.

8. a. The temperature *soared* from 9° to 25°.
 b.* The temperature *soared* from 25° to 9°.

7에서는 count down할 때와 마찬가지로 큰 수에서 시작하여 작은 수로 옮겨가고, 8에서는 정상적으로 작은 수에서 큰 수로 옮겨가고 있는데 그것은 동사의 의미차이 때문에 생긴 결과다.

미국 전역에 퍼져있는 가게 이름가운데 Seven-Eleven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말은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여는 가게)”라는 뜻이다. 그리고 오전 9시에 출근하여 오후 5시에 퇴근한다는 뜻의 표현에 nine-to-five라는 말을 흔히들 쓴다. 이들 두 표현에서도 시발점을 뜻하는 숫자가 앞에 와 있어서 이들이 우리들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다음 예문들에서도 “시발점”에 해당하는 (1)이 (2)보다 앞에 와있는 것을 볼 수 있다.

9. a. He's *London-born*(1) and *bred*(2).
 b. *Hit*(1) and *run*(2) drivers.
 c. It's *cut*(1) and *dried*(2).
 d. *Crime*(1) and *Punishment*(2).
 e. She walked *up the stairs*(1) and *into the apartment*(2).

9의 모든 표현에서 의미상으로 (1)이 (2)를 선행하므로 어순에 있어서도 (1)이 (2)를 선행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 예문들에서도 논리적으로 (1)이 (2)에 선행하므로 어순에 있어서도 (1)이 (2)에 선행하는 것이다.

10. a. *You do that*(1), and *I'll scream*(2),
 b. *Hurry up*(1), or *you'll be late*(2).

10에서 (1)은 조건/원인등을 뜻하고 (2)는 거기에 따른 결과를 뜻하므로 의미상으로 (1)이 (2)에 선행하고 따라서 어순에 있어서 (1)이 (2)에 선행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시간적으로도 (1)은 (2)에 선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시간적인 선후 관계가 논리적/의미적인 선후 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시간적인 선후 관계가 논리적 선후 관계의 선행 조건일지도 모른다.

10의 예문들을 다음과 같이 풀이할 수 있는데 이 때 어순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라.

- 10'. a. *If you do that*(1), *I'll scream*(2). / *I'll scream*(2) *if you do that*(1).
 b. *If you don't hurry up*(1), *you'll be late*(2). / *You'll be late*(2) *if you don't hurry up*(1).

10에서는 등위접속사가 쓰인 반면 10'에서는 종속접속사가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전후 관계를 나타내는데 있어서 등위접속사 보다 종속접속사가 훨씬 강력한 표지의 역할을 한다. 10에서는 자연 어순만 허용되나 10'에서는 자연 어순 이외의 어순도 허용되는 것은 후자에서는 자연어순을 따르지 않더라도 종속접속사라는 강력한 표지가 전후관계를 분명히 하여 주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분사 구문이 일반적으로 문두에 쓰이는 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분사 구문은 조건/원인/이유등의 뜻으로 의미상으로 주절에 선행할 뿐만 아니라 그 형태가 강력한 전후 관계의 표지를 갖고 있지 않아서 자연 어순이 선호된다고 할 수 있다. 전후 관계 표지의 강도와 관련하여 다음의 예문들을 비교해 보자.

11. a. He worked hard *so that* he passed the exam.
 b. He worked hard *so that* he *might* pass the exam.
 12. a. He woke up *to find* her gone.
 b. He worked hard (*in order*) *to pass* the exam.

위의 각 문장에서 앞에 오는 절이 나타내는 행위가 뒤에 오는 절이 나타내는 결과/목적의 선행 조건/상황을 이루고 있다. 그리하여 이들 각 문장이 자연 어순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전후 관계를 나타내는 표시의 강도에 있어서 b의 그것이 a의 그것 보다 강하다는 것이 의미상으로도 그렇지만 형태상으로도 분명히 나타나 있다. 그 결과 강한 표지를 가진 b는 자연 어순을 이탈할 수 있으나, 약한 표지의 a는 그럴 수가 없다. 그리하여 다음 예문들 가운데서 b는 무난하지만 a는 문법에 어긋나게 된다.

- 11.' a. **So that* he passed the exam, he worked hard.
 b. *So that* he *might* pass the exam, he worked hard.
 12'. a. **To find* her gone, he woke up.
 b. (*In order*) *to pass* the exam, he worked hard.

11'. b. 와 12'. b. 의 문장들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11. b. 와 12. b. 의 문장들 보다는 부자연스럽게 느껴진다. 이는 자연 어순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생긴 결과일지도 모른다.

"*Korean-English dictionary*", "*English-Korean dictionary*," "*Sino-Japanese words*" 등의 표현에서도 시발점이 되는 언어의 이름이 먼저 오는데 유의하라. 그리고 Julius Caesar의 유명한 "I came. I saw. I conquered"에서도 문장들 사이의 순서가 사건의 sequence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현상들도 시발점으로 부터의 거리에 의하여 어순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주고 있다.

1.4. 무표적 상태와의 거리

무표적(unmarked) 상태란 표준(standard) 혹은 정상(norm) 상태를 뜻한다. 무표적인 것은 유표적(marked)인 것에 비하여 빈도가 높고 생산적일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적극적인 뜻을 가지며 우리들에게 친숙도가 높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무표적인 말이 유표적인 말보다 앞에 오는 경향이 있다. 다음과 같은 보기들이 이러한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13. a. *To be*(1) or *not to be*(2) ...
 b. *Believe it*(1) or *not*(2) ...
 c. *The haves*(1) and *the have-nots*(2)
 d. *Christian*(1) or *no Christian*(2) ...
 e. *With*(1) or *without*(2) him ...

- f. ...and(1)/or(2)
- g. *Hit*(1) or *miss*(2)...
- h. ...*make*(1) or *break*(2)
- i. *Take it*(1) or *leave it*(2).
- j. *Finders*(1), keepers; *losers*(2), weepers.
- k. *Win some*(1) and *lose some*(2).
- l. *Right*(1) or *wrong*(2)...
- m. *Good*(1) or *bad*(2)...
- n. For *better*(1) or *worse*(2)
- o. ...*for*(1) or *against*(2)...
- p. ...*pros*(1) and *cons*(2)...

이들 모든 표현에서 (1)은 적극적/긍정적(positive)인 뜻을 가졌고 (2)는 소극적/부정적(negative)인 뜻을 가졌다. 그래서 무표적인 전자가 유표적인 후자 보다 앞에 오게 되는 것이다.

남성을 표시하는 말과 여성을 표시하는 말이 한 표현에 나타날 때 일반적으로 전자가 후자의 앞에 오는 것도 전자는 positive한 무표적인 말이고 후자는 negative한 유표적인 말이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표현들을 보라.

- 14. a. *Mr.* (1) and *Mrs.* (2) Smith
- b. *Men* (1) and *women* (2)
- c. *Boys* (1) and *girls* (2)
- d. Everyone should bring *his* (1) or *her* (2) lunch.

다음과 같은 collocation들에서도 (1)은 적극적인 뜻이고 (2)는 소극적인 뜻이며 (1)이 (2)의 앞에 와 있어서 이들을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보기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15. a. *Long* (1) and *short* (2)
- b. *Large* (1) and *small* (2)
- c. *Hot* (1) and *cold* (2)
- d. *Rich* (1) and *poor* (2)
- e. *High* (1) and *low* (2)
- f. *Far* (1) and *near* (2)
- g. *Fast* (1) and *loose* (2)
- h. through *thick* (1) and *thin* (2)

그런데 이러한 collocation에서 (1)과 (2)의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어 *old* (1) and *young* (2)이 정상적이거나 *young* (2) and *old* (1)라는 표현도 요즈음 많이 쓰인다. 여기서 후자는 최근 젊은이 중심의 문화가 전개되면서 생겨난 collocation이 아닌가 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두가지의 어순이 허용되는 것은 전통적으로는 old가 무표적이지만 요즈음 와서는 young이 무표적으로도 인정되어가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up과 down도 정상적으로는 up이 무표적이고 down이 유표적이어서 up(s) and

down(s)의 어순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시간적인 순서에서 down(s)를 먼저 거치고 다음에 up(s)가 오면 어순이 거꾸로 down(s) and up(s)가 될 수 있는 것이다(cf. 1. 3.). 그러므로 다음 두 문장 사이에는 의미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16. a. He climbed *up and down* the tree.
b. He climbed *down and up* the tree.

16. a.는 “올라갔다 내려 왔다” 혹은 “이리 저리 올라 다녔다”의 뜻이고 16. b.는 “내려 왔다 올라 갔다”의 뜻이다. 여기서도 관용적이고 반복적인 뜻일 때는 정상적인 자연 어순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에게 친숙한 무표적인 표현이 그렇지 못한 유표적인 표현 보다 앞에 오는 표현의 보기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7. a. He walked *to* (1) and *fro* (2) in the garden.
b. *He walked *fro* (2) and *to* (1) in the garden.
18. a. He walked *back* (1) and *forth* (2) in the garden.
b. *He walked *forth* (2) and *back* (1) in the garden.

17에서는 to가 fro보다, 18에서는 back이 forth보다 우리에게 친숙한 단어이다. 그런데 backward도 forward보다 우리에게 약간 더 친숙하므로 정상적으로는 backward and forward의 어순을 취하지만 (특히) forward의 동작이 먼저라는 것을 표시할 필요가 있을 때는 forward and backward도 가능하다. (cf. 1. 3.)

여기서 to and fro와 back and forth가 관용적이고 반복적인 의미를 가진데 유의하라. 앞에서 관용적인 의미의 up and down이라든지 now and then/here and there등에서도 마찬가지로 반복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미 지적하였다. 이러한 점을 생각하여 보면 관용성 (idiomaticity)뿐만 아니라 반복성 (repetitiveness)도 자연 어순의 논의에 주요한 변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예문에서도 hard가 fast보다 우리에게 친숙하기 때문에 hard and fast의 collocation으로 쓰이지 않나 생각된다.

19. a. This is a *hard-and-fast* rule.
b. *This is a *fast-and-hard* rule.

다음 표현들의 어순도 친숙도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20. a. *Cup and saucer*
b. *Bow and arrows*
c. *Bread and butter*
d. *Fish and chips*
e. *Gin and tonic*

위의 모든 보기들이 “X and Y”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X”와 “Y”가 합하여 한 항목/단위의 entity를 지칭하고 있다. 이렇게 쓰이는 “X and Y”에서 X는 일차적요소를 지칭하고

Y는 이차적인 요소를 지칭한다. 그리하여 “X”가 “Y”보다 우리의 의식에 prominent하게 와 닿는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로 “X and Y”의 어순은 우리가 말하는 자연 어순을 취하고 이를 뒤바꿀 수 없는 것이다.

만일에 “X and Y”를 어순을 바꾸어 “Y and X”라고 하면 “Y”와 “X”가 각각 별개의 entity로 해석된다. 그러니까 “X and Y”는 관용으로 굳어진 하나의 set phrase 혹은 lexical item이고 “Y and X”는 비관용적인 phrase인 것이다. 여기서도 관용적인 경우에는 꼭 자연 어순을 따르고 있는 것이 흥미로운 일이다.

그런데 같은 말이라도 무표/유표의 기준이 달리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다음 표현들을 생각해 보자.

21. a. *Albert and Victoria*
- b. *Victoria and Albert*

Albert와 Victoria가 정상적인 부부 혹은 쌍이라면 보통 Albert and Victoria의 어순을 취한다. 그것은 Albert가 무표적인(positive한)남성이고 Victoria가 유표적인(negative한)여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Victoria가 Albert보다 중요한 인물로 지명도가 더 높으면 Victoria and Albert가 자연 어순이 될 수 있다. 그것은 Victoria가 Albert보다 우리에게 더 친숙하기 때문인 것이다.

실제로 영국의 Victoria여왕과 그의 부군 Albert를 지칭할 때는 Victoria and Albert의 어순을 쓴다. 그러나 영국의 공동 통치자(joint rulers)였던 King William과 Queen Mary부부를 이야기할 때는 남녀 성 구분에 의한 자연 어순을 따라 William and Mary라 한다.

다음 예문들에 쓰인 수량의 표시에 있어서 큰 단위가 작은 단위 앞에 오는 것도 아마 전자가 후자보다 우리의 의식에 강렬하게 와 닿기 때문일 지도 모른다.

22. a. He's 4 years and 5 months old.
- b. It's 2 yards and 5 inches long.
- c. I got it for 2 dollars (and) 8 cents.
- d. It happened 2 thousand and 7 hundred years ago.

1. 5. 서술어 의미와의 거리

서술어가 불평등의 관계를 표시할 때 서술어와 의미상으로 가까운 표현일수록 앞에 오는 경향이 있다. 우선 다음 예문들을 생각하여 보자.

23. a. X *benefits* Y.
- b. Y *benefits from* X.

위에서 X는 benefactor이고 Y는 beneficiary이다. 23. a.에서는 서술어 benefits가 “이익을 주다”는 능동적인 행위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그 행위를 행하는 X가 그것을 받는 Y보다 서술어와 의미상으로 가깝다. 그러므로 X가 앞 자리인 주어 자리에 오고 Y는 뒷 자리인 목적어 자리에 오는 것이다.

반면에 23. b.에서는 서술어 benefits from이 “이익을 받다”는 뜻이므로 beneficiary인 Y가

benefactor인 X보다 그것과 의미상으로 가깝다. 그리하여 여기서는 Y가 주어 자리에 오고 X는 (전치사)목적어 자리에 오는 것이다.

다음 비교 구문에서도 의미상으로 서술어와 더 가까운 명사(구)가 주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24. a. *X is taller than Y.*
 b. *Y is less tall than X.*
 c. *Y is not so tall as X.*

24. a. 에서 서술어 *taller than*은 “더 큰”이라는 뜻이므로 X와 Y 가운데 더 큰 X가 주어 자리에 온다. 반면에 24. b. 와 24. c. 에서는 서술어가 정반대의 뜻이므로 “덜 큰” Y가 주어 로 선택되는 것이다.

Implicit comparison of inequality의 서술어인 *outrun/precede/antedate/follow/be in front of/be in back of* 등으로도 22~23과 같은 예문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서술어 다음에 오는 표현들도 의미상으로 서술어와 가까운 것일 수록 앞에 오는 경향이 있다. 다음 예문들에서 서술어 다음 부분의 어순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자.

25. a. *Seoul is farther from Pusan than (it is) from Taejon.*
 b. *Seoul is nearer to Taejon than (it is) to Pusan.*

“더 먼”이라는 뜻의 *farther than*이 쓰인 25. a. 에서는 Seoul에서 더 먼 Pusan이 앞에 왔고, “더 가까운”이라는 뜻의 *nearer to*가 쓰인 24. b. 에서는 Seoul에서 더 가까운 Taejon이 앞에 왔음을 볼 수 있다.

1.6. 관계 요소와의 거리

서로 관계가 밀접한 요소들 사이에는 최단 거리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더 정확히 말해서 관련 요소들의 머리(head) 사이에 최단 거리를 취하려는 경향이 있다. Park(1977a: 47-50).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의미 해석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다음 예문들을 검토해 보자.

26. a. *Call (1) the girl (2) down (3).*
 b. *Call (1) down (3) the girl (2).*
 27. a. *?Call (1) the girl (2) in black down (3).*
 b. *Call (1) down (3) the girl (2) in black.*

26. 에서는 관련 요소 (1), (2), (3)이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 두 문장이 다 자연스럽다. 그러나 27의 경우 27. b. 에서는 문제의 세 요소 사이에 가까운 거리가 유지되고 있어 좋으나, 27. a. 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27. a. 에서는 (1)과 (3)이 너무 떨어져 있고, (2)와 (3)도 많이 떨어져 있어 웅색한 문장이 되고 만다. 그리하여 27. a. 보다는 27. b. 같은 어순을 택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 두 쌍의 문장에서 a가 b보다 자연스러운 것도 27의 b가 a보다 자연스러운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

28. a. I gave (1) *him* (2) *the letter* (3) I had found on the floor.
 b. ?I gave (1) *the letter* (3) I had found on the floor to *him* (2).
 29. a. *Word* (1) *came* (2) *that* (3) he would come to see us here.
 b. ?*Word* (1) *that* (3) he would come to see us here *came* (2).

다음 문장들에서 *immediately*의 위치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자.

30. a. I *immediately* told him to stop crying.
 b. I told him to *immediately* stop crying.
 c. I told him to stop *crying immediately*.

위의 문장들에서 *immediately*가 그것의 focus를 받는 동사와 최단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0. c.에서 *immediately*의 focus가 *told*나 *stop*에 갈 수도 있으나 그것이 최단 거리에 있는 *crying*에 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Focusing element와 focused element사이에 최단 거리를 추구하는 경향은 물론 *immediately*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Variable focus를 가진 기타 모든 focusing words(e.g. *only*, *not*, etc.)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의 경향을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1.7. 거리 보존의 경향

변형(transformation) 과정을 거쳐 어순이 변화하더라도 구성 요소 사이의 상대적인 거리는 원래 표현에서와 같이 보존되는 경향이 강하다. 다음 표현들을 검토하여 보자.

31. a. The *girl* (1) *that looks* (2) *nice* (3)
 b. The *nice*(3)-*looking* (2) *girl* (1)
 32. a. The *device*(1) for *cooking* (2) *rice* (3)
 b. The *rice*(3)-*cooking* (2) *device* (1)/The *rice*(3)-*cooker* (2, 1)
 33. a. The *economy* (1) *that is dependent* (2) on *agriculture* (3)
 b. The *agriculture*(3)-*dependent* (2) *economy* (1)
 34. a. The *economist* (1) *that was educated* (2) in *America* (3)
 b. The *American*(3)-*educated* (2) *economist* (1)
 35. a. The *textbook* (1) on *music* (2) *that are for colleges* (3)
 b. The *college* (3) *music*(2)-*textbooks* (1)
 36. a. The *textbooks* (1) *that are for colleges* (2) of *music* (3)
 b. The *music*(3)-*college* (2) *textbooks* (1)

위의 보기들에서 각각 a에서 b가 transformationally derived되었다고 볼 때, 어순이 (1)-(2)-(3)에서 (3)-(2)-(1)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어순은 바뀌어도 (1), (2), (3) 사이의 상대적인 거리에는 변함이 없음을 아울러 확인할 수 있다.

33, 34, 35, 36의 원형을 각각 The *economy* (1) *that is agriculture-dependent*(2), The *economist* (1) *that was American-educated* (2), The *music textbook* (1) *that are for colleges* (2), The *textbooks* (1) *that are for music colleges* (2)로 잡아도 거리 보존의 원칙은 그대로 적용된다. (1)-(2)-(3)이 (3)-(2)-(1)로 변하는 대신 (1)-(2)가 (2)-(1)로 변할 따름이다.

다음과 같은 subject-verb inversion의 경우에도 거리 보존의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37. a. *The rain* (1) *came* (2) *down* (3).
 b. *Down* (3) *came* (2) *the rain* (1).
 38. a. *His attitude toward his friends* (1) *was* (2) *equally incomprehensible* (3).
 b. *Equally incomprehensible* (3) *was* (2) *his attitude toward his friends* (1).

다음과 같은 타동사 구문의 명사화에서도 거리 보존의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39. a. *Oswald* (1) *assassinated* (2) *Kennedy* (3).
 b. *Oswald's* (1) *assassination* (2) *of Kennedy* (3).
 40. a. *Kennedy* (1) *was assassinated* (2) *by Oswald* (3).
 b. *Kennedy's* (1) *assassination* (2) *by Oswald* (3).
 c. *The assassination* (2) *of Kennedy* (1) *by Oswald* (3).

위에서, a로부터 b가 파생되었다고 할 때 파생과정에서 어순이 전혀 변하지 않고 따라서 (1), (2), (3)사이의 상대적 거리도 변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40. a.의 변형이라 할 수 있는 40. c.는 40. a.의 요소들 사이의 상대적인 거리를 보존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40. c.가 40. a.에서 파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더 멀리는 39. a.에서 파생하였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40. c.의 *Kennedy*는 원래 목적어였다는 것을 39. a.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런데 (직접)목적어로 쓰이는 명사(구)는 압도적으로 그리고 전형적으로 non-human의 자질을 갖는다. 설사 인간을 지칭하는 명사(구)가 (직접)목적어로 쓰였다 해도 그 명사(구)는 기능상으로 non-human적인 것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하여 40에서 *Kennedy*는 human noun임에는 틀림없으나 여기서 (의미상 직접)목적어이므로 기능상으로는 non-human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Kennedy*를 non-human적인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를 genitive suffix인 -'s앞에 쓰면 어색한 표현이 될 수 있으므로 40. b. 대신 40. c.를 쓰게 되는 것이다(cf. 1. 2.). 사실상 40. c.가 40. b.보다 자연스러울 지도 모른다. 어쨌든 40. c.의 경우는 거리 보존 원칙의 지배도 받는 것이 사실이지만 동시에 1. 2.에서 이야기한 인간과의 거리의 제약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들 두개의 원칙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는 1. 2.의 원칙이 우선하는 것으로 일단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예문들을 39와 40에 비교하여 보자.

41. a. *John* (1) *made* (2) *the desk* (3).
 b. *John's* (1) *making* (2) *of the desk* (3).
 42. a. *The desk* (1) *was made* (2) *by John* (3).
 b. **The desk's* (1) *making* (2) *by John* (3).
 c. *The making* (2) *of the desk* (1) *by John* (3).

40. b.는 허용되지만 42. b.는 허용되지 않는 것은 의미상 목적어가 40. b.에서는 ascribedly non-human이지만 42. b.에서는 inherently non-human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문장들의 어순을 논할 때 desk와 같은 inherently non-human인 목적어와 Kennedy와 같은 ascribedly non-human인 목적어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무게와 어순

Quirk et al (1938-1944)에 의하면 end focus와 end weight의 원칙에 따라서 문장에서 의미상으로 혹은 형태상으로 가장 무거운 요소가 그 문장의 맨 뒤로 가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그들은 또 여러 개의 부사적 표현이 문장 끝에 같이 올 때는 의미 범위가 크거나 형태상으로 큰 것이 뒤로 간다고 주장한다.

여기서는 Quirk et al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 들이되 그 적용 범위가 그들이 말한 것 보다 훨씬 넓다는 것과 그것을 여러 모로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여 주려고 한다. 일반적으로 어떤 요소가 갖는 의미 범위가 넓거나, 형태상으로 길거나 복잡하면 그 요소가 무겁다고 할 수 있다. 어떤 표현의 구성 요소인 X, Y, Z가 있고 X가 Y보다, 그리고 Y가 Z보다 무거울 때 그 표현의 어순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다. 세 요소가 다 쓰이면 $X+Y+Z$ 의 어순이 쓰이고, 두 요소씩만 쓰이면 $X+Y$, $X+Z$, $Y+Z$ 의 어순이 쓰일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요소의 무게가 무거울 수록 그것이 뒤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2.1. 의미의 무게

의미가 무거운 요소일 수록 뒤에 온다는 것을 다음과 같은 표현을 검토해 보면 곧 알 수 있다.

43. a. #10 Downing Street, London
b. *London Downing Street #10
44. a. Richmond, Virginia, U.S.A.
b. *U.S.A. Virginia Richmond

43과 44에서 장소 범위가 큰 것을 지칭하는 표현일 수록 뒤로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같은 장소의 표현이라도 방향(direction)을 표시하는 것이 자리(location)를 표시하는 것 보다 가벼운 것으로 취급된다. 그것은 방향은 자리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45. a. 는 자연스러우나 45. b. 는 자연스럽지 못하다.

45. a. He walked *back and forth* (1) *in the garden* (2).
b. ?He walked *in the garden* (2) *back and forth* (1).

지금까지 장소의 표현만 이야기하였는데 시간의 표현도 마찬가지다. 다음 표현들을 보자.

46. a. *Tuesday 29 October, 1985*
b. * *1985 October 29 Tuesday*
47. a. *See you later tonight.*
b. *? *See you tonight later.*
48. a. *...every hour for five days.*
b. * *...for five days every hour.*
49. a. *...for five hours every day.*
b. (?) *...every day for five hours.*

46에서 Tuesday와 29가 다같이 날(day)을 나타내지만 전자는 (day of the) week를 뜻하

고 후자는 (day of the) month를 뜻하기 때문에 전자보다 후자가 의미상으로 더 무겁다고 할 수 있다. 29 October를 미국 영어에서는 October 29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Law School, Harvard (University)”와 “Department of English”를 각각 “Harvard (University) Law School”과 “English Department”라고 할 수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로이다.

48. b.가 49. b.보다 훨씬 부자연스러우데는 이유가 있다. 48. b.에서 for five days every hour는 의미상으로는 물론(day>hour) 구조상으로도(전치사구>명사구) 무거운 요소가 가벼운 요소 앞에 와 있어서 이중으로 좋지 않다. 여기에 반하여 49. b.의 every day for five hours는 의미상으로도 무거운 요소(day)가 가벼운 요소(hour) 앞에 와 있어 조금 부자연스러우나 아주 나쁘지는 않다.

공간의 표현과 시간의 표현을 함께 써야 할 때는 전자보다 후자가 무거운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 그것은 공간은 시간 안에 포함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간의 표현이 장소의 표현 앞에 오면 부자연스러우나 그 역은 자연스럽다는 사실이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해 준다. 다음 예문들을 보라.

50. a. I was *in Honolulu* in 1965.

b. *I was *in 1965 in Honolulu*.

다음 두 문장의 차이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자.

51. a. She gave *me a book*.

b. She gave *a book to me*.

51. a.와 51. b.는 각각 “What did she give you?”와 “Who did she give a book to?”에 적합한 답이다. 그리하여 51. a.와 51. b.는 초점이 각각 book와 me에 와 있다. 이러한 의미의 초점/비중의 차이 때문에 위의 두 문장 사이에 어순의 차이가 생긴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두 문장의 어순에 나타나는 차이도 의미 초점/비중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52. a. She called *her boy down*.

b. She called *down her boy*.

52. a.와 52. b.는 각각 “What did she do to her boy?”와 “Who did she call down?”에 적합한 답이 된다. 따라서 (call) down과 her boy에 각각 가장 큰 의미 비중이 가서 이들이 각 문장의 맨 뒤에 오게 되는 것이다.

Indefinite noun phrase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므로 의미 비중이 크고 따라서 그것이 문두에 오면 그 문장이 부자연스러워진다. 그리하여 indefinite noun phrase를 뒤로 보내려는 경향이 있다. 다음 첫 문장과 나머지 두 문장을 비교해 보자.

53. a. *A book* is in his pocket.

b. He has *a book* in his pocket.

c. There's *a book* in his pocket.

Indefinite noun phrase인 *a book*은 문두에 적절치 못하여 53. a. 같은 문장은 어색하므로 이를 피하고 보다 자연스러운 53. b. 나 53. c. 같은 문장으로 바꾸어 쓰는 것이 보통이다.

사실상 indefinite noun phrase가 아니더라도 주어의 정보량이 보어등 verbal complement 보다 크면 문장이 부자연스러워진다. 다음 예문들을 보라.

54. a. *He is my brother.*
 b. *? *My brother is he.*
 55. a. *John is my brother.*
 b. (?) *My brother is John.*

54에서는 정보량에 있어서 he보다 my brother가 분명히 크므로 54. a.는 좋으나 54. b.는 좋지 않다. 반면에 55에서는 John보다 my brother가 정보량이 약간 크므로 55. a.는 자연스러우나 55. b.는 약간 부자연스럽다.

다음 예문들의 좋고 나쁨도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

56. a. *Seoul is a confusing city*
 b. *? *A confusing city is Seoul.*
 57. a. *Seoul is the confusing city.*
 b. *The confusing city is Seoul.*

54. b.와 56. b.는 완전히 비문법적인데 반하여 53. a.는 조금 부자연스러울 따름인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54. b.와 56. b.와는 달리 53. a.는 주어의 정보량이 be동사 보족어의 그것보다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53. a.의 *A book*이 (in) his pocket에 들어/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래 보기에서 형용사의 위치를 정보 비중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58. a. *The big car*
 b. *The car is big.*

형용사 big이 a에서는 given information을, b에서는 new information을 담고 있다. 그리하여 big의 정보 비중이 a에서는 가볍고 b에서는 무겁다. 따라서 big이 a에서는 명사 앞에 오고 b에서는 명사 뒤에 오는 것이다.

지금까지 취급한 것들은 대부분 Quirk et al의 이야기를 응용/원용하여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다. 2.1.의 나머지 부분에서 다룰 사항들은 대부분 그들의 이론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들인 바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요구되는 것들이다.

1.2.에서 주어(직접)목적어 앞에 오는 경향과 간접목적어가 직접목적어 앞에 오는 경향에 대하여 언급한 바 있다. 거기서는 그 경향을 인간과의 거리의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 경향을 정보 무게의 관점에서도 설명할 수 있다. 즉 정보량이 클 수록 뒤로 간다는 2.1.의 원칙으로도 이 현상의 설명이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동일한 현상을 두가지로 설명한다는 것은 그 설명이 비경제적이고 충분한 일반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여기에 하나의 통일된 설명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상 그러한 통일된 설명이 가능할 듯 하다. 1장의 거리와 2장에서 지금까지 말한 무게는 서로 정비례하는 것 같다. 즉 의미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우리의 의식으로부터의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을 듯하다. 그렇다면 무게와 거리를 immediacy의 개념으로 통일하고 “표현의 구성 요소가 의미상으로 immediacy가 낮을수록 뒤로 가는 경향이 있다”는 가설을 내세울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통일된 설명의 가능성에 대하여 앞으로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다음 예문들에서 빈도의 부사의 위치가 어떻게 변하고 있나 생각해 보자.

59. a. *He is always late.*
 b. *He always comes late.*
 60. a. *He is seldom late.*
 b. *He seldom comes late.*

위에서 빈도의 부사는 동사가 be이면 동사 다음에 오고, 동사가 lexical verb “comes”이면 그 앞에 와 있다. 이것은 빈도의 부사가 의미상으로 be동사 보다는 무거우나 lexical verb 보다는 가볍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He has always been late*”라든지 “*He will seldom be late*” 등 예문이 위의 설명에 약간의 문제점을 던져 주고 있다. Be동사가 빈도 부사의 뒤에 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be동사라도 다른 조동사 다음에 쓰이면 그것이 “본동사”로서의 무게가 상대적으로 그만큼 늘어나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도 어순은 역시 의미 비중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문장들에서 not의 위치도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61. a. *He was not late.*
 b. *He did not come late.*

여기서도 “*He has not been late*”라든지 “*He will not be late*” 등 apparent counterexamples가 있으나, 이들도 “*He has always been late*” 등과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예문들의 어순도 무게의 변수를 원용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62. a. *Was he late?*
 b. *Did he come late?*

Subject-verb inversion에 있어서 무게가 가벼운 be동사는 주어를 뛰어 넘어 (맨) 앞 자리에 와도 아무렇지 않다. 그러나 lexical verb인 come은 꽤 무게가 나가는 단어이므로 주어를 뛰어 넘어 전형적으로 가벼운 것이 와야할 (맨) 앞자리에 올 수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Came he late?*”는 비문장이 되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Did he come late?*”를 사용한다. 여기서 Did는 거의 무게가 없는 동사이므로 주어 앞에 두어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이것을 사용함으로써 come을 원래 위치에 두면서도 “*Was he late?*”에서와 같은 Subject-verb inversion의 효과를 얻고 있는 것이다.

다음 예문들에 나타난 가변 어순(variable word order)도 무게의 변수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63. a. *Does he have a farm?*
 b. *Has he (got) a farm?*
 64. a. *Do you need to go there?*
 b. *Need you go there?*

이렇게 두가지 어순이 가능한 것은 *have*와 *need*가 의미상으로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의 경계선에 있어서 어느 쪽으로나 취급될 수 있기 때문일지 모른다. 동사가 63. a. 와 64. a. 에서는 무게가 나가는 *lexical verb*로 취급되었고, 63. b. 와 64. b. 에서는 무게가 거의 안 나가는 조동사로 취급되었다.

그런데 *have*가 *dynamic*한 의미를 가지면 그 의미비중이 커져서 *lexical verb*로 취급된다. 그리하여 “*Did he have a good time?*”, “*He always had a good time,*” “*He did not have a good time*”은 좋으나 “*?Had he a good time?*”, “*?He had always a good time,*” “*?He had not a good time*”은 좋지 않다.

정상적인 조동사는 *inherent meaning*이 약하므로 지금까지 이야기한 *be*동사나 가벼운 의미로 취급되는 *have/need*와 같은 어순을 보여준다. 다음 예문들을 보라.

65. a. *They can always come back.*
 b. *They cannot come back.*
 c. *Can they come back?*
 66. a. *They have always come back.*
 b. *They have not come back (yet).*
 c. *Have they come back (yet)?*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자료도 무게의 변수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67. a. **?Will not you help me?*
 b. *(?)Will you not help me?*
 c. *Won't you help me?*

*Will*은 조동사로서 그리고 *not*은 부정사로서 *inherent meaning*이 강하지 않다. 그러나 *will not*을 나란히 쓰면 두 개의 무게가 한꺼번에 작용하므로 꽤 무거워진다. 그래서 *will not*이 문두에 쓰인 67. a. 는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그런데 *will*만 앞으로 보내고 *not*을 뒤에 둔 67. b. 도 좋지 않다. 그것은 비교적 가벼운 *not*이 *subject-verb inversion*때 주어 앞으로 가야 하는데 못가고 뒤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will not*을 줄여 만든 *won't*는 *contraction*과정에서 (구조적) 무게가 조금 줄어들어서 *will not*보다는 가벼워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won't*를 주어 앞에 내세운 67. c. 는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지 않았나하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예문들에 있어서 주어의 가변 위치(*variable position*)도 주어의 무게 변화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68. a. *Here comes John.*
 b. *Here he comes.*

68. a.와 68. b.는 각각 “John comes here”와 “He comes here”와 연관된 문장들로서 68. a.에서는 거리 보존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으나 68. b.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것은 고유명사 John은 의미 비중이 크므로 comes다음에 와야 좋으나 대명사 he는 의미 비중이 아주 약하므로 come뒤에 오면 부자연스러워지므로 그 앞에 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69. a.는 가능하나 69. b.는 불가능한 것도 무게 변수로 설명할 수 있다.

69. a. *She called him down.*
 b. **She called down him.*

여기서 대명사 him은 고유의미가 거의 없으므로 (call) down보다 훨씬 약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him이 (call) down 다음에 쓰인 67. b.는 비문장이 되고 그렇지 않은 67. a.만 허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69. b.도 him에 contrastive emphasis등 information focus가 주어지면 가능한 문장이 된다. 그것은 him의 의미 비중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의 어순도 우리의 무게변수의 가설로 문제없이 설명할 수 있다.

명사라도 대명사 처럼 의미 비중이 약한 것을 two-word verb의 목적어로 쓰면 particle 앞에 와야한다. 예를 들어 “Reggie led things off...”는 좋으나 “?Reggie led off things”는 좋지 않다. 이러한 현상도 물론 무게의 변수로 설명할 수 있다.

다음 예문들에서 reporting clause의 어순도 무게의 변수에 의하여 좌우된다.

70. a. “Wonderful!” said John.
 b. “Wonderful!” John said.
 71. a. *?“Wonderful!” said he.
 b. “Wonderful!” he said.

70에서는 John과 said의 의미비중이 엇비슷하여 두가지 어순이 다 가능하다. 그러나 71에서는 he의 의미 비중이 said의 그것보다 훨씬 약하여 71. b.는 좋으나 71. a.는 좋지 않다. 71. a.의 어순도 어린이들 특유의 극적인 어조로 말할 때는 가능하나 정상적인 어순은 못 된다.

물론 71. a.도 he에 contrastive emphasis등에 의한 information focus가 오면 가능한 문장이 된다. Contrastive emphasis를 받기 때문에 주어 역할을 하는 대명사가 맨뒤로 가는 보기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72. a. *He likes her, and so do I.*
 b. *He wasn't late, nor were you.*

위 두 문장에서 둘째 절에 오는 I와 you는 첫째 절에 오는 He와 대조되어 강세를 받는다. 이러한 대조 강세 때문에 대명사 I와 you가 절의 맨 끝에 오는 것이다.

다음 예문들에서 as~절의 어순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자.

73. a. I'm a musician, *as my wife is.*
 b. I'm a musician, *as is my wife.*
 74. a. I'm a musician, *as she is.*
 b. *I'm a musician, *as is she.*

73에서는 *my wife* 의미비중이 아주 크므로 그것을 후치할 수 있다. 그러나 74에서는 *she*의 의미 비중이 아주 약하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she*에 *information focus*를 주기 전에는 74. b.가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것은 73과 74에 쓰인 *be*동사가 의미상으로 상당히 무겁다는 점이다. 그것은 동사 다음에 생략된 부분(*a musician*)의 무게도 거기에 함께 실려 있기 때문이다.¹⁾ 여기서 *be*동사가 무겁다는 증거로 73. a.와 74. a.를 각각 “*...*as my wife's*”와 “*...*as she's*”로 끝낼 수 없다는 것을 내세울 수 있다. 왜냐 하면 의미비중이 큰 요소는 생략될 수 없는 바 여기서도 이러한 생략형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is*의 의미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에 열거한 유형의 구문에서 두 구성 요소의 의미 비중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자.

- (A) 전치사+보족어(보기 : *I live in Seoul.*)
 (B) 종속접속사+보족어(보기 : *If I were you, I wouldn't do that.*)
 (C) 조동사+본동사(보기 : *I can do that.*)
 (D) 동사+보족어(보기 : *I love music. /I am young./I live in Seoul.*)

위에 열거한 각 구문에서 첫 부분을 지배자, 둘째 부분을 피지배자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한결같이 지배자 보다 피지배자가 더 큰 의미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사실이 양자의 형태상의 크기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단 (D)의 경우는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의 차이가 의미 비중이나 형태 비중에 있어서 그리 크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위의 구문들에서 지배자가 피지배자 앞에 오는 것은 전자가 후자보다 가벼운 의미/정보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지배자는 다분히 *proclitic*적인 특성을 가졌다. 다른 *proclitic words*도 대부분 여기서 말하는 지배자와 같은 성격을 가지리라고 생각된다. “칭호+이름”의 구조도 칭호를 *proclitic*으로 하는 “지배자+피지배자”의 구문일 지도 모른다. 뿐만 아니라 “*first name+last name*”의 구조도 비슷하게 분석할 수 있을 듯하다. 이러한 분석이 옳다면 *Dr. Johnson*이라든지 *Ben Johnson*에서 왜 *Dr.*와 *Ben*이 앞에 오고 *Johnson*이 뒤에 오는가도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2.2. 형태상의 무게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바와 같이, 형태상으로도 무게가 무거운 요소일 수록 뒤로 가는 경향이 있다. 다음 표현들에 이러한 경향이 잘 나타나 있다.

75. *A man of means* (1) *who aspires to high office* (2).
 76. He broke the window *intentionally* (1) *with a hammer* (2) *because he didn't like it* (3).

위에서 (1)은 (2)보다, (2)는 (3)보다 형태가 간단하고 따라서 무게도 가볍다. 그리하여

1)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Park(1981)에서 이미 다룬 바 있다.

어순이 가벼운데서 무거운데로 (1)+(2)+(3)으로 되어 있다.

다음 표현들의 어순을 결정하는데도 분명히 형태상의 무게가 작용하고 있다.

77. a. *St. Joseph College*
b. *College of William and Mary*

이들 이름은 사람 이름을 따서 지은 대학 이름들로서 형태상으로 가벼운 *St. Joseph*는 *College* 앞에 와있고, 그 보다 무거운 *William and Mary*는 *College* 뒤에 와 있다.

그런데 1.2.에서 이야기한 인간과의 거리의 원칙에 의하면 77. b.도 *William and Mary College*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1.2.의 원칙이 2.2.의 원칙과 충돌하게 되어 결국은 후자가 승리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처럼 이들 두 원칙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2.2.의 원칙이 우선하지만 드물게 정반대의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Victoria and Albert Museum*이 그렇다.

다음 표현에서도 어순을 결정하는 원칙 두가지 사이에 갈등이 있다.

78. a. *Ladies and gentlemen!*
b. (?)*Gentlemen and ladies!*

1.4.에 의하면 남성 표현이 여성 표현보다 앞에 와야 하므로 78. b.가 올바른 어순이어야 할 것이나 이는 자연스러운 표현이 못된다. 2.2.의 원칙에 의하면 형태상으로 더 무거운 *gentlemen*이 뒤에 와야 하므로 78. a.가 올바른 어순이어야 하고 실제로도 이것이 정상적인 어순이다. 그러므로 1.4.와 2.2.의 원칙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2.2.가 1.4.에 우선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ladies* 앞에 오는 것은 여성을 “우대”하는 사회문화적인 태도에서도 기인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2.2.가 꼭 1.4.에 우선한다고만 볼 수도 없을 듯하다.

77과 78을 감안해 보면, 어순을 결정할 때 무게의 변수와 거리의 변수사이에 갈등이 있으면 전자가 후자에 우선한다는 가설을 내세울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화자(speaker)의 의도에 따라서는 *Gentlemen and ladies*도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Paper Chase*라는 영화에 나오는 *Charles Kingsfield* 교수는 언제든지 *Gentlemen and ladies*라고 하는데 그는 *male chauvinist*일 뿐만 아니라 일부러 익살을 부리느라 이러한 어순을 택한 것이다.

2.1.에서 언급한 “지배자+피지배자”의 구문이 다른 표현을 수식할 때는 반드시 전자가 후자 다음에 온다. 예를들어 “*books on economics*”에서 *on economics*가 *books* 다음에 온다. 그것은 여기서 수식어가 피수식어보다 형태상으로(그리고 의미상으로) 더 무겁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2.3. 의미와 형태의 갈등

의미상의 무게와 형태상의 무게는 일치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것은 무거운 의미를 표시하자면 그만큼 무거운 형태의 옷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때로는 의미상의 무게와 형태상의 무게가 일치하지 않아 둘 사이 갈등이 생긴다. 다음 예문들이 잘 보여주듯이 이러한 갈등이 있을 때는 보통 두가지 어순이 가능하다.

79. a. I'll be back *at midnight tonight*.
 b. I'll be back *tonight at midnight*.

의미상으로는 *at midnight*가 *tonight*에 포함되므로 전자가 후자 보다 가벼워서 79. a.의 어순이 좋다. 그러나 형태상의 무게는 정반대여서 79. b.가 오히려 좋다고 하겠다. 두 가지 어순 가운데 어느 것을 택하느냐 하는 것은 *end focus*등 원칙에 의하여 결정될 수도 있다. 그러나 중립적인 상황에서는 79. a.가 79. b.보다 약간 더 자연스럽게 읽히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든다. 만일 이런 느낌이 옳다면 의미 비중이 형태 비중에 우선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예문들에 나타난 두가지 어순도 의미 비중과 형태 비중의 갈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80. a. I'll see you *at school today*.
 b. I'll see you *today at school*.

80. a.는 의미 비중에 의한 어순이고 80. b.는 형태 비중에 의한 어순이다. 여기서도 *end focus*에 의하여 양자택일할 수 있으나, 80. a.가 80. b.보다 약간 자연스러워 보이는 것 같다. 이러한 느낌이 옳다면, 이것 또한 의미와 형태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전자가 후자에 우선한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3. 맺는 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요약하여, “표현을 구성하는 한 요소가 나타내는 거리가 멀수록, 혹은 그 무게가 무거울 수록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 결론에서 “경향”이라는 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른 현상에서나 마찬가지로 언어 현상에서도 절대적인 규칙은 있을 수 없다. 그 한가지 이유는 언어는 항상 변하고 있는데서 찾을 수 있다. 이 변화가 점진적으로 그리고 부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언어의 “규칙”도 부분적으로만 적용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언어에는 무수히 많은 변수들이 흔히 예측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작용하여 규칙 적용이 봉쇄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 언어 규칙이란 사실상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언어에는 경향은 있을 수 있으나 엄밀한 의미의 규칙은 있을 수 없다. 그런데도 언어학자들이 규칙 운운하는 것은 어느 의미에서는 자기기만 행위일지도 모른다.

이 논문에 몇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하여 이미 언급한바 있다. 이들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갈등/중복의 문제들이라 할 수 있다.

두가지 원칙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어느 쪽이 어떤 조건에서 우선인가 하는 문제를 부분적으로 다룬 바 있다(cf. 1. 1. 과 1. 3.). 그러나 이 문제의 포괄적인 이해와 취급이 아직은 불가능한 상태이다.

무게와 거리 두 변수가 흔히 하나의 통일된 변수로 취급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앞에서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의미상의 무게와 형태상의 무게 사이의 중첩 가능성에 대하여도 언급한 바 있다. 이렇게 서로 중복되었을 지도 모르는 변수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의 만족스러운 변수로 통일하는 작업도 지금으로서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다.

끝으로 우리의 자연 어순 연구가 어순의 언어 보편적 양상의 연구에 좋은 기반이 될 지도

모른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특히 거리의 변수에 좌우되는 어순의 경우에 그렇지만 무게의 변수로 결정되는 어순의 경우에도 흔히 영어와 한국어 사이에 근본적 차이가 없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한영 양국어의 자연 어순에 차이가 있을 때라도 아무렇게나 다르게 아니라 양국어 사이에 체계적인 전환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2.1.에 말한 “지배자+피지배자”의 구문은 한국어에서 “피지배자+지배자”의 어순을 일반적으로 따르고 있다. 그리고 부사적 표현들이 한꺼번에 올 때 영어에서는 무거운 것이 뒤로 가는데 반하여 한국에서는 앞으로 온다. 그런데 이러한 어순의 체계적인 차이는 양국어의 기본(문장)어순인 (subject) *verb*+*object*와 (subject) *object*+*verb*의 차이에 의하여 결정되는 지도 모른다.

어떻든 간에 자연 어순의 언어 보편적 양상에 관한 연구는 인간 언어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연구는 언어 교육, 특히 외국어 교육을 위한 좋은 자료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Chomsky, Noam (1965)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MIT Press, Cambridge, Mass.
- Fillmore, Charles J. (1968) ‘The Case for Case,’ in E. Bach and R.T. Harms, eds. *Universals in Linguistic Theory*, Holt, Rinehart and Winston, New York.
- Park, Nahm-Sheik (1977a) *Variables in Sentential Readability—with Special Reference to EFL/ESL for Korean Learners*, Georgetown University Ph.D. Dissertation.
- Park, Nahm-Sheik (1977b) “Structural Density as a Comprehensibility Variable,” *Language Research* 13. 2, 95-103,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In Korean)
- Park, Nahm-Sheik (1977c) “Contiguity as a Comprehensibility Variable,” *Linguistic Journal of Korea* 2. 2, 65-74. (In Korean)
- Park, Nahm-Sheik (1980) “The Distance Variable in Linguistic Description—with Special Reference to English,” *Languages and Linguistics* 6, 9-32,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eoul. (In Korean)
- Park, Nahm-Sheik (1981a) “Weight as a Linguistic Variable,” an unpublished paper read at the annual spring seminar of the Linguistic Society of Korea.
- Park, Nahm-Sheik (1981b) “Distance and Length in Language with Special Reference to English,” an unpublished paper read at a seminar cosponsored by the East-West Center and the University of Hawaii Department of Linguistics.
- Park, Nahm-Sheik (1982) “Constraint on Proximate Repeti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English,” *Language Research* 18. 1, 217-231,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Park, Nahm-Sheik (1983a) “Proximity and Reduction,” *Language Research* 19. 1, 75-102,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Park, Nahm-Sheik (1983b) “Natural Word Order in English,” an unpublished paper read at a monthly seminar of the Language Research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 Park, Nahm-Sheik (1984) “The Constraint on Proximate Repetition and Phonological Ex-

- planation in English," *Language Research* 20. 4, 367-415,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Park Nahm-Sheik (In preparation) "Determinants of Word Order—with Special Reference to English."
- Procter, Paul et al., eds. (1978) *Longman Dictionary of Contemporary English*, Longman Group, London.
- Quirk, Randolph et al. (1972) *A Grammar of Contemporary English*, Longman Group, London.